

가족가치관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기대가 남녀 대학생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Family Values and Expectation for Social Support on Marriage Intention Among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박주희(Juhee Park)*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ungshin Women's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family values and expectations for social support on marriage intention among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This study involved 427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attending colleges located in Seoul.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ollege students in this study tended to have relatively traditional family values in sub-scales including value of children, value of marriage and gender role attitude. Moreover, college students were found to have relatively high expectations toward social support and marriage intention. Second, male students had a higher traditional tendency for all sub-scales of family values including value of children, value of marriage and gender role attitude compared to female students. In addition, they tended to have higher expectations on social support and marriage intention than female students. Third, a greater intention to marry was seen in male students having more traditional values of children and a higher expectation toward future income. The value of children was found to be the most influential factor on marriage intention of male students in the present study. On the contrary, marriage intention was higher in female students the older they were, the greater the expectation of informal support, the lower the expectation of future income, and the more the traditional attitudes toward marriage. Informal support was found to be the most influential factor on marriage intention of female students in the present study.

▲주제어(Key words): 가족가치관(Family Values), 사회적 지지 기대 (Expectation toward Social Support), 결혼의향 (Marriage Intention), 남녀 대학생(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I. 서론

최근 한국사회는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결혼을 미루거나 독신을 지향하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혼인건수의 감소를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혼인·이혼 통

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혼인은 30만 2800여건으로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Statistics Korea, 2015).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나타내는 조(粗)혼인율은 5.9건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현상은 결혼적령기에 해당하는 성인들뿐만 아니라 청년세대들의 결혼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며 결혼률 저하에 따른

* 이 논문은 2015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Corresponds Author: Juhee Park,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ungshin Women's University, 147, Mia-dong, Gangbuk-gu, Seoul 142-100, Tel: + 82-2-920-7575, Email: pjh@sungshin.ac.kr

사회적 변동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는 스스로를 3포 세대(데이트, 결혼, 출산)로 일컫기도 하여 결혼에 대한 청년들의 부정적 인식을 알 수 있다. 결혼율의 저하로 인해 결혼시장의 위축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 또한 우려된다. 따라서 결혼적령기 성인뿐만 아니라 결혼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대학생들의 결혼기피의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사회적 파장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욱이 성인 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은 사회진출에 대한 준비를 기반으로 결혼에 대한 준비가 매우 주요한 과업이다. 성인초기 특성에 경제적 독립과 결혼이 준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가 늦어지거나 불편이 없으면 결혼은 꼭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J. W. Lee, 2006).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되며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저출산 현상을 들 수 있다. 현재의 저출산은 결혼과 가족, 자녀관 등에 대한 가족주의 가치관의 변화를 비롯해, 노동시장의 변화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해결 방안 또한 쉽지 않다(H. Y. Kim & B. Y. Sun, 2011).

따라서 성인기 초기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지속적 연구는 결혼과 출산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가족정책 개발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이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남녀 간의 결혼과 관련해 사회 환경에 다르게 적응해 왔음에 주목한 결혼의 향에 차이를 둔 다양한 연구들을 시도해 왔는데 S. K. Kim(2003)의 미혼남녀의 결혼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9.1%가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대답하였으며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의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HASA(2005)의 연구에서도 미혼남녀의 결혼에 대한 태도는 남성의 경우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는 71.4%였으나 여성의 경우는 49.2%로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M. A. Kim and Y. S. Song(2012)의 연구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긍정적 결혼가치관을 나타냈으며, Y. M. Na and M. K. Kim(2012)의 연구결과 또한 결혼에 대하여 긍정적인 가치관을 남학생이 31.4%, 여학생이 19.4%로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서 결혼에 대하여 더욱 긍정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결혼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과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결혼의향과의 관련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의 관련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지지란 1970년대 중반

예방심리학이 대두되면서 높아지기 시작하여 가족, 친구, 이웃, 기타 사람들에 의해 제공된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를 의미하는데 널리 이용되어 왔다(M. S. Kim, 1998).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로부터 받는 긍정적인 자원으로 자신이 속한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하며, 인간의 정서적 적응과 생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Sarason et.al, 1983).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망, 사회적 지지망, 사회적 지지체계와 같은 여러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개념·유형과 사회적지지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크게 공식적 지원과 비공식적 지원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정부 혹은 지역사회의 실제적 지원 및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지지를, 후자는 외부인으로 부터 지지받고 있다고 인식되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의미한다(E. J. Lee, 2007; D. H. Jang, & K. E. Lee, 2010).

이와 같은 사회적 지지의 의미와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대학생들이 미래 결혼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도와 줄 수 있는 가족내적, 외적 지지체계의 유용성을 인식하고 있는가의 여부는 결혼을 결정하는 주요 동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와 결혼의향과의 관련성에 주목한 연구는 결혼정책에 개발이나 실천적 개입에도 매우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 수준과 이성관계의 경험을 분석하거나(J. Y. Kim, 2001) 또는 성별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에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탐구한 연구(S. R. Kim, 2003)등 제한적으로 접근하고 있을 뿐 미혼 대학생들이 지각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지지와 결혼의향과의 직접적 관련성에 접근한 연구는 거의 다루지 못하였다. 현대가족은 가족 및 결혼생활의 문제와 일·가정 양립의 과제를 가족차체에서 해결하기에 가족 돌봄의 기능이 크게 변하고 있어 가족 돌봄을 위한 외부의 전문가 집단이나 전문기관의 개입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결혼을 생각하고 결정해야 하는 젊은 세대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기대는 결혼의향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결혼과 가족에 관한 가치관, 사회적 지지가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남녀 간에 다르게 반영되고 있을 것으로 예측하여 성별간의 결혼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요인들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결혼할 것인가의 여부는 결혼 적령기에 접어들어 갑자기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인기 초기부터의 사회적 경험과 개인적 인식에 의해 형성된 가치관에 따른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성인인기 초기의 주요발달 과업인 결혼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대학생을 대상으로 향후 이들의 결혼 의향과 관련 요인들을 규명해 봄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저출산 대책의 기초 자료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향후 효과적인 결혼정책 및 저출산 정책의 방향과 내용들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언급된 연구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대학생의 가족가치관, 사회적 지지의 기대의 전반적 경향 및 이러한 경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의 결혼의향에 가족 가치관,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기대는 영향을 미치는가?

II. 선행연구 고찰

1. 가족가치관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가치관이란 일반적으로 인간의 삶속에서 옳고 그름 또는 좋고 나쁨의 가치를 부여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가족 가치관이란 가족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관점이나 기준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M. J. Chin., H. E., Chung, 2010). 가족 가치관은 가족 중심적 집합주의의 규범적 원리로 이해된다. 이러한 특성을 토대로 가족 가치관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측면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다. S. W. OK(1984)은 가족을 형성하기 전과 후로 나누어 배우자 선택과 결혼관,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관으로 분석하였고, K. S. Kim(1998)은 결혼관, 성역할관, 자녀관, 부양 및 효도관, 가족주의 가치관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가족 가치관은 다양한 하위 개념을 포함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질문하고 측정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경향성을 발견해 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가족가치관은 결혼관, 성역할 태도 및 자녀관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한편, K. S. Eun(2005)은 우리나라는 비교 문화적 측면에서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가치의 지니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가족가치관에 대한 평가가 단편적인 질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결과 결혼의식이 약화되었다고 보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가족가치관은 결혼여부나 연령대, 경제능력 등 다양한 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근대성과 전통성이 공존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가족가치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의 대표적 정의들을 살펴보면, S. Cohen and H. Hoberman(1983)은 사회적 지지를 대인관계의 수준에서 개인이 지각한 모든 긍정적 자원으로 정의하였다. R. S. Weiss(1993)는 사회적 지지를 애착, 사회적 통합, 가치의식의 재확신, 신뢰할 만한 관계형성, 지도와 양육의 기회 등의 특성으로 분류하였다. J. S. House(1981)는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지지(신뢰, 애정, 감정이입, 친밀감, 평가적지지, 수용, 긍정적 환류, 긍정적 자기평가), 정보적지지(사람들이 스스로 돕는 것을 돕기 위한 것, 그들이 사회적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돕는 것), 도구적지지(실제적 도움의 교환, 욕구 충족의 효과를 가지는 실제적 도움)로 정의하였다. 국내 연구에서 나타난 정의를 보면, Y. S. Kim and J. M. Kim(2001)의 연구에서는 인간이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그를 통해 얻게 되는 자원이 사회적 지지이며 실제적인 사회적 지지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유대, 유의미한 사회적 접촉, 사회적 조직망, 사회 심리적 자산, 지지체제, 관계 제공 등의 여러 형태로 쓰이고 있다고 정의하였다. 사회적 지지 척도개발을 위한 연구에서 J. Park(1985)은 사회적 지지자원의 개념을 사회적 지지망, 지지형태, 지지욕구로 이루어진 개념차원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 제공받는 지지정도와 사회망의 구성원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 및 지지욕구의 충족정도를 반영해주는 자신의 사회관계에서의 유대감, 자신감, 신뢰감에 대한 인식 정도 등의 요소들을 포함시켰다. 한편 사회적 지지 자원을 공식적(formal) 혹은 비공식적(informal) 개념으로써 나눌 수 있는데 비공식적 체계에서의 사회적 지지 자원은 친척, 친구, 이웃, 종교적 단체 등의 사람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공식적 체계에서의 사회적지지 자원은 사회사업가, 의사, 물리치료사 등의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C. J. Dunst, C. M. Trivette, & A. G. Deal, 1988). 사회적 지지 자원을 또한 수혜적(received social support)으로 받는 지지 자원과 누군가로부터 사랑, 동감을 받고 있고 있다는 인식적(perceived) 지지 자원으로 나눈다. 한 개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인지적 지지는 심리학적 안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처럼 사회적 지지의 영역은 다양하게 세분화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 자원을 제공해주는 주체에 따라 비공식적인 사회적 지지 자원과 공식적인 사회적 지지 자원으로 구분한 C. J. Dunst, C. M. Trivette, & A. G. Deal(1988)의 연구를 바탕으로 비공식적인 사회적

지지 자원으로는 가족, 친구 및 이웃으로부터 제공되는 도움의 정도에 대한 기대로 파악하였으며 공식적인 사회적 지지 자원으로는 사회복지사나, 상담 등의 전문가들로부터 도움 및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도움의 정도에 대한 기대로 측정하고자 한다.

3.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

1) 결혼의향의 개념

L. Ajzen(1991)는 의향과 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의향이 강할수록 실제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다. 결혼은 서로 다른 성을 가진 두 사람의 성인이 정서적·법적으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또한 결혼은 성인남녀가 합의하에 가정을 이루며 인간의 생활양식 중에서 가장 기본적 행동양식이며 고전적 제도이지만 결혼에 대한 태도나 인식은 시대에 따라 변해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속성을 갖는 결혼과 관련한 결혼의향은 결혼에 대한 선택의 의미나 결혼에 대한 가능성의 의미로 접근해 볼 수 있다. P. J. Stein(1981)의 연구에 따르면, 결혼의향의 의미는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결혼을 선택할 수 있는 입장에서 결혼을 하고 싶은지 그렇지 않은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다면, 시간이 지나고 더 이상 결혼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혼에 대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비자발적으로 결혼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라고 보았다. 따라서 결혼의향이란 일정 연령까지 선택의 의미로 해석 가능하며 또 다른 연령대에서는 결혼의향이 결혼의 가능성이 계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E. Y. Hong(2011)은 결혼의향을 두 가지 의미로 접근하여 첫째는 결혼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결혼에 관한 선택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결혼에 대한 생애적인 자의적 가능성에 대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개념적 접근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의 결혼의향은 생애동안 결혼에 대한 자의적 가능성의 정도를 묻는 의미로 정의하여 살펴보겠다.

2)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

(1) 가족가치관과 결혼의향

전통적 결혼유인의 약화 및 결혼제도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약화되면서 결혼을 기피하거나 또는 결혼보다는 동거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 결혼의향의 경향은 사회변화의 영향을 받는다. 전통사회에서의 결혼은 가족과 공동체의 중요한 의무로 간주되며 개인의 의향보다는 가족의 안정을 우선시하여, 남성에게는 가족공동체의 계

승 발전을 위해 결혼은 필수적이었고 여성에게는 가족공동체를 존속시켜 나가기 위한 자녀출산의 의무가 주어졌다(J. S. Choi, 1983). 한편 신고전주의 경제학자인 G. S. Becker(1973)는 '결혼의 이론'에 경제학적 분석을 적용하여 설명하였으며 '초혼연령이 늦어지는 것은 결혼으로 인한 효용이 감소하고 비용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즉 기대소득이 증가하면 남성의 경우 결혼으로 인한 소득 또한 커지지만, 여성은 결혼할 경우 포기해야 할 소득이 커지게 되므로 결혼을 미루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베커의 명제를 우리 사회에 적용해 보면 한국사회의 결혼기피 현상은 결혼으로 인한 효용가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결혼비용은 상승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산업화와 함께 특히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과 함께 기혼 여성의 일·가정 양립의 부담과 함께 대체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결혼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갖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S. Son, & J. Lee, 2014; J. H. Park, 2005; J. H. Park, 2015b; R. C. Barnett, & C. Rivers; G. S. Becker, 1976; A. R. Hochschild, 1997; R. Pahl, 1984). G. S. Becker(1976)에 따르면 여성들의 교육수준의 향상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은 그들 결혼에 대한 선택권을 갖게 하며 여성들은 직업과 결혼을 성공적으로 연결시킬 수 없다고 느끼면 기꺼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고 커리어를 선택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남녀 모두에 있어서 기타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개인들이 많아지면서 독신을 다양한 형태의 생활방식의 하나로 여기고 선택하려는 경향도 함께 많아지는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가족가치관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M. J. Chin and H. E. Chung(2010)은 결혼이 개인적 선택 영역으로 전환될수록 가치관이 행동이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족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약화되면 가족가치관은 결혼의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S. Sassler and R. Schoen(1999)도 결혼의 필요성과 가치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결혼할 의향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결혼을 바람직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영속성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일수록 결혼을 덜 스트레스적인 사건으로 지각하였으며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여성일수록 결혼전이가 수월하게 이뤄지고 초혼연령이 빠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S. S. Lee, 2010). 신고전주의 경제학적 분석은 자녀양육의 비용에 따른 자녀가치관 약화도 결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강조하였다(D. M. Blau & D. K. Robins, 1976; S. Helburn & C. W. Hoers, 1996; D. Maume, 1991). M. J. Chin and H. E. Chung(2010)은 최근 지난 5년 사이 남녀 모두 결혼 필요

성에 대해 동조할수록 결혼 희망연령이 빨랐으며, 여성은 혼전동거에 대해 수용적일수록 결혼희망연령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결혼 및 자녀의 필요성과 같은 당위적 규범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으로 올수록 약화된 반면, 자녀의 정서적 가치가 미치는 영향은 최근으로 올수록 강화되었다.

S. Park, et al.(2005)은 최근 남녀 결혼시기의 연장을 한국사회에 있어 결혼이 갖는 계층적 특성과 성역할분리 규범 및 경제조정의 우발적 결합의 결과로 봄으로써 결혼의 지연에는 가치관과 경제 및 시장상황 등이 다층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보았다. 특히 미래의 배우자가 될 수 있는 미혼 남성들의 시장력이 약화되면서, 여성들이 결혼을 통해 대리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제약되고, 그 결과 여성들 스스로 경제활동 참여의 동기가 증가하여 결혼에 대한 규범적 태도가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S. S. Lee, et al.(2005)은 결혼필요성의 가치관이 약하거나 전통적 성별 분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는 경우 결혼시기를 늦추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였다. S. H. Moon(2012)의 연구에서는 결혼가치관, 가족 가치관, 그리고 성평등성이 결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긍정적일 수록 결혼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의 가치인 부부관계 가치관의 경우 부부관계의 평등성에 대한 의식이 높을 수록 미혼여성이 결혼을 결정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족 가치관은 성별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가족가치관의 경향이 남성은 긍정적, 전통적, 보수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여성은 전통성과 현대성의 양립으로 인한 가치관의 혼재가 나타났다(S. H. Moon, 2012; N. Y. Joo, 2012).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결혼관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보적이게 나타났다(A. J. Seo, 1994; M. S. Yang, 1996). 이처럼 성별에 따라 가족가치관은 다르게 나타나며 일관된 흐름을 나타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기대와 결혼의향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회피하거나 미루게 되는 요인들 중에는 결혼과 가족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측면도 한 요인이 된다. 우리 사회처럼 집단주의 문화와 관계지향적인 특성이 강한 우리나라는 다른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와 사회적 지지가 다른 사회보다 더욱 중요시 된다(S. H. Oh, et al., 1999). 특히 사회적 지지가 풍부할수록 결혼생활이 원만하다는 사실과

사회적 지지 중에서도 부부의 친·인척 및 친구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원이 결혼생활의 적응에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연구(S. J. Koh, 1996)를 볼 때, 예비 결혼세대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기대 수준은 결혼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지에 대한 대다수의 연구는 기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결혼생활만족도와와의 관련성에 초점을 두었는데 즉, Fincham and Bradbury(1990)는 그들의 파트너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배우자의 지각이 그들의 결혼만족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K. S. Choi, 2006 재인용). D. Y. Jeong(2004)의 연구에서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E. K. Chang(2001)의 연구에서는 부부의 경우 각 배우자가 자신의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는 결혼생활을 저해하는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결혼만족도를 높이는데도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기대는 미혼 대학생들의 결혼의향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기대와 결혼의향과의 관계를 주목한 연구들은 거의 없다.

일부 진행된 연구들은 주로 사회적 지지와 결혼생활만족도의 관계에 주목한 연구들로 부모의 경제적 지원 정도와 결혼의향과의 관련성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S. Y. Im & J. H. Park, 2014; S-K. Koh & S. Auh, 2013; M. W. Lee, et al., 2012). F. Goldscheider & G. Goldscheider (1999)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경제적 자원은 부모가 자녀를 독립 시켜줄 자금제공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늦은 나이까지 집에 머물도록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S. Y. Im and J. H. Park(2014)의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의 자원제공에서 경제적 자원이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사회는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없이는 자녀의 결혼시기가 더욱 늦어지는 결과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남성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필요가 줄었다는 점, 결혼을 통해 여성들이 감수해야 할 출산과 양육, 가사업무 등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미혼세대인 대학생을 중심으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 수준과 결혼의향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3) 기타 관련 요인들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한 연구들은 결

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로 성별, 연령, 소득, 부모의 결혼상태 등이 논의 되었다.

① 성별

결혼률 감소 또는 기피와 관련된 원인으로 성차에 기반을 둔 연구들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는데 H. Y. Kim(2011)는 남성에 비해 여성들의 만혼화 경향과 독신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혼의 효용가치가 갖는 성별적 함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S. K. Kim(2003)은 연구에서는 미혼남녀의 29.1%가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대답하였으며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HASA(2005)의 연구에서도 미혼남녀의 결혼에 대한 태도는 남성의 경우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는 71.4%였으나 여성의 경우는 49.2%로 나타나 남성에 비해 여성이 결혼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은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D. S. Kim et al.(2007)은 통계청의 1998년, 2006년 자료를 비교하여 결혼의 필수성 보다 선택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결혼 선택에 대한 허용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최근의 많은 연구들(S-K. Koh & S. Auh, 2013; J. B. Kim, 2013; N. Y. Joo, 2012; E. Y. Hong, 2011)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E. Y. Hong(2011)은 이러한 결과를 결혼의 보상과 비용에 대한 남녀 인식차이로 분석하였는데, 남성은 결혼의 보상을 더 높게 지각하며, 여성은 비용을 더 높게 인식하여 결혼생활의 부정적 측면을 더 크게 지각하여 결혼의향이 낮은 것으로 밝히고 있다.

② 연령

연령과 성별과의 관련성을 함께 고려한 연구들로 J. S. Kim(2006)의 연구에서는 결혼의향에 대한 연령의 효과가 남녀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여성의 경우 미혼남성에 비해 나이가 많아질수록 결혼을 선택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여성이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연령과 결혼의향과의 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연령 규범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J. H. Seo(2009)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성의 결혼의향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의 연구에서는 전국의 20~44세 여성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성의 생활의식에 관한 의식조사」에서 결혼 의향 결정 요인을 검토한 釜野(2004)는 연령이 많은 사람일수록 결혼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혔다.

③ 개인소득

한 개인의 소득 수준은 결혼의 가능성 여부 및 결혼 이후 생활 유지 등 사회경제적 수준을 반영하는 가장 좋은 변수로서 결혼시기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소득이 결혼시기에 미치는 영향 또한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K. S. Eun(1995)에 따르면 배우자 선택에 있어 남성은 취업여부, 여성은 결혼적령기를 규정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나이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IMF 등 경제위기 이후 실업과 향후 경기에 대한 불안은 결혼에서 경제적 능력이 가지는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았으며(K. S. Eun, 2005), 최근 청년층의 비정규직화의 증가 및 경제상황의 악화는 미래 소득에 대한 기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혼의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山田(2004)는 일본의 경우 전후 부모세대에서 '중류사회'가 실현되고 생활수준이 윤택해진 반면 경제 호황기에 자란 아이가 청년이 되었을 때, 현실 상황에서 젊은 남성의 평균 수입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고 중류생활을 보내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 결혼적령기가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30대 미혼 남녀의 결혼의향에 대한 경제적 자원을 연구한 S-K. Koh(2012)의 연구에서도 미혼남녀의 자산의 측면에서 미혼남성의 경우 집 소유 여부는 결혼의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 부모가 집을 소유한 남성이 집을 소유하지 않은 남성에 비하여 더욱 높은 결혼의향을 나타냈으며 이는 결혼결정에서 남성의 경제적 부담과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의 연관성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 되었다.

이와 같이 미래소득에 대한 기대는 예비결혼 세대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청년층의 비정규직화의 증가 및 경제상황의 악화 또한 결혼의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④ 부모의 결혼상태

한편, 가족 환경적 요인 측면 또한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즉, 자신이 속해 있는 원가족 내의 분위기가 안정적인 경우는 결혼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게 하는 반면, 부모의 이혼과 같은 부정적 사건은 젊은층의 결혼의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S. H. Oh, 2006; Y. J. Jeon, 2005). J. H. Cha(2002)의 연구에서도 원가족 건강성은 성인초기의 결혼에 대한 의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 부모의 결혼생활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가의 여부 또한 결혼의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college students

Categories	Variables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en	185	43.3
	Women	242	56.7
Major	Humanities	29	6.9
	Natural Sciences/Engineering	205	48.6
	Social Sciences	31	7.3
	Practical Sciences	157	27.2
Religion	Yes	172	40.5
	No	253	59.5
Family type	Parents+children	366	85.7
	Grandparents+parents+children	20	4.7
	Single parent+children	24	5.6
	Others	17	4.0
College year	Freshmen	78	18.3
	Sophomore	125	29.3
	Junior	103	24.2
	Senior	120	28.2
Age	Mean age: 22.8 (sd=2.14)		
Expectation for future income	High	131	17.4
	Moderate	221	51.9
	Low	131	30.7
Parental marriage evaluation	Very happy	86	20.1
	Quite happy	146	34.2
	Moderately happy	112	26.3
	Not very happy	59	13.8
	Not happy at all	24	5.6

* The number of cases may differ because of questions not answered.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으로 대상으로 유의표집을 통해 수집하였다. 설문조사 2016년 3월 1일~3월 31일까지 실시하였다. 총 450부를 배포하여 부실 기재된 자료를 제외하고 427부를 분석 대상으로 활용하였다. 이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학생' 56.7%, '남학생' 43.3%로 나타났으며 전공 계열은 '자연.공학계열'이 48.6%, '생활과학계열' 27.2%, '사회계열' 7.3%, '인문계열' 6.9%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여부를 보면 종교가 '있음'이 40.5%, '없음' 59.5%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로는 '부모+자녀'가 85.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한부모+자녀'의 형태가 5.6%, '조부모+부모+자녀' 형태가 4.7%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학년 구성을 보면 '2학년' 29.3%, '4학년' 28.2%, '3학년' 24.2%의 순이었다. 평균연령은 22.8세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의 소득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는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보통이다'가 51.9%로 가장 높았으며, '낮다'는 30.7%로 나타났으며 '높다'는 17.4%로 나타나 대학생들의 미래소득기

대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결혼생활에 대한 평가는 '행복하다'가 34.2%, '보통이다' 26.2%, 매우 행복하다 20.1%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2. 측정 도구

1) 종속변인 : 결혼의향

결혼의향의 측정은 '귀하는 결혼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결정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2) 독립변인

(1) 가족 가치관

가족가치관의 척도는 M. J. Cho(2010)의 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측정 도구는 결혼에 대한 태도에 관한 4문항, 남녀 간의 성역할에 관한 3문항, 자녀에 관한 5문항으로 3개의 요인으로 총12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범위로 리커트(Likert)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가

Table 2. Assessment scale and reliability coefficient

	Variables	Items	Reliability
Dependent variable	Marriage intention	1	
	Family values	12	.87
	Value of marriage	4	.86
	Gender role attitude	3	.86
	Value of children	5	.87
Independent variables	Expectation of social support resources	12	.83
	Informal support	9	.83
	Formal support	3	.82
Control variables	Age (continuous variable)		
	Family type (parents+children=1, others=0)		
	Parental marriage evaluation (5=very happy, 4=quite happy, 3=moderately happy, 2=not happy, 1=not happy at all)	4	
	Expectation for future income (3=high, 2=moderate, 1=low)		
	Religion (1=yes, 0=no)		

진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가족 가치관은 Chronbach's $\alpha=.87$ 로 하위 영역인 결혼관은 Chronbach's $\alpha=.86$, 성역할태도는 Chronbach's $\alpha=.86$, 자녀관은 Chronbach's $\alpha=.87$ 로 나타났다.

(2)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기대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기대는 J. H. Park(2015a)의 측정 도구를 본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비공식적 지지 자원에 대한 기대는 가족 지지와 가까운 타인의 지지에 대한 기대로 공식적 지지에 대한 기대는 사회기관서비스 지지 및 전문가 지지 자원에 대한 기대로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범위로 리커트(Likert)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기대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사회적지지는 Chronbach's $\alpha=.83$ 으로, 하위 영역인 비공식적 지지는 Chronbach's $\alpha=.83$ 으로, 공식적 지지는 Chronbach's $\alpha=.82$ 로 나타났다.

(3) 통제변인

통제변인으로는 남녀 대학생의 연령, 종교, 미래소득기대, 가족형태, 부모결혼생활 평가의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Table 2>.

3. 자료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남녀 대학생의 가족가치관,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기대, 결혼의향을 전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를 활용하였다. 남녀 대학생이 지각하는 미래소득기대, 가족 가치관,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기대, 결혼의향의 전반적 경향 및 성별 차이를 살펴 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 편차, t-검증을 산정해 보았다. 여자 대학생과 남자 대학생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대학생의 가족 가치관,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기대, 결혼의향의 경향 및 성별에 따른 차이

대학생의 가족 가치관, 사회적 지지, 결혼의향을 분석한 결과<Table 3>, 먼저 가족 가치관은 3.03점(SD=.77)으로 중간값 3점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 다소 전통적 가족 가치관의 경향을 보였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자녀관, 결혼태도, 성역할태도 모두 중간 값이 3점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 다소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기대의 경우 3.64점(SD=.95)로 중간값 3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비공식적 지지는 3.69점(sd=.99)으로 공식적 지지는 3.47점(SD=1.02) 나타나 비공식적 지지 자원에 대한 기대를 더 높게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의향의 경우 3.20점(SD=1.12)로 중간 값 2.5점 보다 높게 나타나 대학생의 결혼의향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에 따른 가족 가치관,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기대, 결혼의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Table 3>, 가족 가치관의 경우 하위 영역인 '자녀관'(p<.01), '결혼태도'(p<.05), '성역할관'(p<.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

Table 3. Differences in family values, expectation of social support, marriage intention and gender among college students

Variables	Overall	Male students	Female students	t-value	
		M(SD)	M(SD)		
Family values Overall: 3.03(.77)	Value of children	3.00(.92)	3.22(.75)	2.81(1.01)	4.54**
	Marital attitude	3.06(.78)	3.17(.69)	2.97(.83)	2.60*
	Gender role attitude	3.05(.96)	3.18(.83)	2.95(1.03)	2.44**
Expectation of social support Overall: 3.64(.95)	Informal support	3.69(.99)	4.11(.47)	3.37(1.16)	8.19***
	Formal support	3.47(1.02)	3.66(.77)	3.32(1.15)	3.45**
Marriage intention	3.20(1.12)	3.20(.76)	2.83(1.21)	7.07***	

* $p < .05$, ** $p < .01$, *** $p < .001$

Table 4. Relative influence of factors predicting marriage intention in male college students

Variables	Marriage intention			
	Stage 1	Stage 2	Stage 3	
	β	β	β	
Control variables	Age	-.04	-.01	-.00
	Religion (1=Yes, 0=No)	.01	.02	.01
	Family type (1=parent+children, 0=others)	.09	.06	.07
	Expectation for future income (3=high, 2=moderate, 1=low)	.26***	.19*	.18*
	Parental marriage evaluation	.13	.09	.08
Independent variables	Family values		.24**	.24**
	Value of children		.02	.01
	Marital attitude		.08	.08
	Gender role attitude			
	Expectation of social support			.14
			.01	
Constant	2.85	1.80	1.04	
Adjusted R ²	.078	.125	.135	
F value	4.13**	4.23***	3.79***	
DW	2.01	1.98	1.98	
VIF	1.01~1.04	1.04~1.95	1.04~2.02	

* $p < .05$, ** $p < .01$, *** $p < .001$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 대학생이 여자대학생 보다 자녀관, 결혼태도, 성역할관이 모두 전통적인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기대에서도 비공식적 지지 자원($p < .001$), 공식적 지지 자원($p < .001$)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비공식적 지지에 대한 기대와 공식적 지지 자원에 대한 기대를 더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의향의 경우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결혼에 대한 의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2. 대학생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남자 대학생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남자 대학생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

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DW계수, VIF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독립변인들의 DW계수는 각각 2.01, 1.98, 1.98로 2에 가깝게 나타났으며 VIF 값은 모두 3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이 중 불연속변수인 가족형태, 종교는 가변수(dummy variable) 처리하였다. 1단계에는 통제변인인 연령, 종교, 가족형태, 미래소득기대, 부모결혼생활평가를 투입하여 분석하였고 2단계에서는 가족 가치관의 하위 영역인 자녀관, 결혼태도, 성역할관을 3단계에서는 사회적지지 자원에 대한 기대의 하위영역인 비공식적지지와 공식적지지 변인을 투입하였다.

1단계에서의 통제변수를 투입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Table 5. Relative influence of factors predicting marriage intention in female college students

Variables	Marriage intention						
	B	β	B	β	B	β	
Control variables	Age	.18	.23***	.16	.22***	.10	.13**
	Religion (1=Yes, 0=No)	-.18	-.07	-.17	-.07	-.19	-.08
	Family type (1=parent+children, 0=others)	.28	.05	.08	.10	.12	.10
	Expectation for future income (3=high, 2=moderate, 1=low)	-.43	-.30***	-.35	-.23**	-.30	-.19**
	Parental marriage evaluation	.49	.35***	.41	.30***	.08	.09
Independent variables	Family values			.37	.31**	.10	.06
	Value of children			.13	.09	.19	.13*
	Marital attitude			.08	.07	.04	.03
	Gender role attitude						
	Expectation of social support					.43	.25***
	Informal support					.04	.04
Formal support							
Constant		1.14		1.64		2.69	
Adjusted R ²		.320		.360		.587	
F값		23.52***		17.50***		34.09***	
DW		1.81		1.71		1.81	
VIF		1.02~1.08		1.04~2.96		1.05~2.00	

* $p<.05$, ** $p<.01$, *** $p<.001$

계 나타난 변인은 '미래소득기대'($\beta=.26$, $p<.001$)으로 결혼 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Adjusted R²은 0.078로 이 변인들은 결혼의향 변량의 7.8%를 설명하였다($F=4.13$, $p<.01$). 즉, 남자 대학생의 경우 미래소득기대감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 가족가치관을 하위요인별로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미래소득기대'($\beta=.19$, $p<.05$), 가족가치관의 하위 영역인 '자녀관'($\beta=.24$, $p<.01$)이 결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Adjusted R²은 0.125로 2단계에서 설명력은 1단계 보다 4.7%p 증가하여 이 변인들은 결혼의향 변량의 12.5%를 설명하였다($F=4.23$, $p<.001$). 즉, 미래소득기대가 높을수록 그리고 전통적 자녀관 의식이 높을수록 남자 대학생의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통제변인, 가족 가치관, 사회적지지에 대한 기대 하위요인별로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미래소득기대'($\beta=.18$, $p<.05$), '자녀관'($\beta=.24$, $p<.01$)이 결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Adjusted R²은 0.135로 3단계에서 설명력은 2단계 보다 1.0%p 증가하여 이 변인들은 결혼의향 변량의 13.5%를 설명하였다($F=3.79$, $p<.001$). 즉, 남자 대학생의 가족 가치관 중 자녀관이 전통적일수록 그리고 미래소득기대가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남자 대학생의 결혼의향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자녀관으로 나타났다.

2) 여자 대학생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자 대학생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독립 변인들의 DW계수는 각각 1.81, 1.71, 1.81로 2에 가깝게 나타났으며 VIF 값은 모두 3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Table 5>와 같다.

1단계에서의 통제변인인 연령, 종교, 가족형태, 미래소득기대, 부모결혼생활평가를 투입하여 분석하였고 '연령'($\beta=.23$, $p<.001$), '가족형태'($\beta=.15$, $p<.01$), '미래소득기대'($\beta=-.30$, $p<.001$), '부모결혼생활평가'($\beta=.35$, $p<.001$)에서 결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Adjusted R²은 0.320으로 이 변인들은 결혼의향 변량의 32.0%를 설명하였다($F=23.52$, $p<.001$). 즉, 여자 대학생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형태가 부모+자녀로 이루어진 형태일 때, 미래소득기대가 낮을수록, 그리고 부모결혼생활을 행복하다고 느낄수록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 통제변인, 가족 가치관을 각각 하위 요인별로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beta=.22$, $p<.001$), '미래소득기대'($\beta=-.23$, $p<.01$), '부모결혼생활평가'($\beta=.30$, $p<.001$), '자녀관'($\beta=.31$, $p<.001$)이 결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Adjusted R²은 0.360로 2단계에서 설명력은 1단계 보다 4.0%p 증가하여 이 변인들은 결혼의향 변량의 36.70%를 설명하였다($F=17.50$, $p<.001$).

즉, 여자 대학생의 연령이 높을수록, 미래소득기대가 낮을수록, 부모결혼생활에 대한 평가가 높을수록 그리고 자녀관이 전통적일수록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통제변인, 가족 가치관, 사회적지지에 대한 기대를 각각 하위요인별로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beta=.13, p<.05$), '미래소득기대'($\beta=-.19, p<.01$), '결혼태도'($\beta=.13, p<.05$), '비공식적 지지'($\beta=.25, p<.001$)가 결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Adjusted R2은 0.587로 3단계에서 설명력은 2단계 보다 22.7%p 증가하여 이 변인들은 결혼의향 변량의 58.7%를 설명하였다($F=34.09, p<.001$). 즉, 여자 대학생의 연령이 높을수록, 미래소득기대가 낮을수록, 결혼에 대한 태도가 전통적일수록, 그리고 비공식적 지지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여자 대학생의 결혼의향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는 비공식적 지지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결혼의향, 가족가치관, 사회적 지지의 기대에 대한 일반적 경향과 남녀의 차이를 살펴보고, 남녀 대학생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앞으로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고 준비해야 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결혼을 결정하는데 유용할 수 있는 정책적·실천적 개입을 파악해 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 이를 위해 서울시내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을 연구자와 보조 연구원이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결과 및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 및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남녀 대학생의 가족 가치관,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기대, 결혼의향의 경향을 살펴본 결과 먼저 가족가치관의 경우 하위 영역인 자녀관, 결혼관, 성역할태도에서 다소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의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남녀 대학생들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기대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의향 또한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은 성별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 보다 자녀관, 결혼태도, 성역할 태도 모두 전통적인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기대, 결혼의향 모두 남자 대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의향이 높다는 다수의 연구들(S-K, Koh & S. Auh, 2013; J. B. Kim, 2013; N. Y. Joo, 2012; E. Y. Hong, 2011)와 일치한 결과로 남자 대

학생들의 경우도 결혼의 보상을 더 높게 지각하며, 여자 대학생의 경우 결혼의 비용을 더 높게 인식하여 결혼의 부정적 측면을 더 크게 지각하고 있음을 입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도 가족가치관은 남성은 긍정적, 전통적, 보수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는 선행연구들을(S. H. Moon, 2012; N. Y. Joo, 2012)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기대에서도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 보다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남아가 여아보다 더욱 넓은 사회적 관계망을 갖으며, 가정 밖의 외부환경의 사회적 자원을 보다 잘 이용함으로써 사회적 지지를 더 높게 지각한다고 보고한 연구(B. K. Bryant, 1985)와 일치한 결과이나 반면에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적 지지를 더 높게 지각한다는 연구(Y. K. Song, 2006)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둘째, 남녀 대학생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남자 대학생의 결혼의향에는 남자 대학생의 가족 가치관 중 자녀관이 전통적일수록 그리고 미래소득의 기대가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남자 대학생의 결혼의향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자녀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남자 대학생들의 결혼의향에는 자녀에 대한 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남자 대학생들의 경우 결혼에서의 재생산 기능 및 자녀의 필요성에 공감할수록 결혼의향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여자 대학생의 경우 비공식적 지지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을수록 미래 소득에 대한 기대가 낮을수록 그리고 결혼에 대한 태도가 전통적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여자 대학생의 결혼의향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는 비공식적 지지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여자 대학생은 결혼 후에도 맞벌이를 원할 것이며, 일·가정 양립을 돕는 가족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기대는 여학생들의 장래 결혼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동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본 연구를 통해 남녀 대학생 모두 미래소득기대가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나타낸 반면 미래소득기대가 결혼의향에 미치는 관계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즉, 남자 대학생의 경우 미래소득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높았으며, 반면에 여학생의 경우 미래소득에 대한 기대가 낮을수록 결혼의향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 역시 여자 대학생들의 경우 미래소득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결혼과 함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노동시장에서의 기회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혼의향에 대하여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이상의 변수들의 차별적인 효과는 미혼에서 결혼으로 이행하는

과정과 동기가 성에 따라 다르게 작동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결혼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연구에서 이러한 남녀 간 차별성 및 공통성이 반영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제언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성별간의 가치관의 차이나 사회적지지 수준의 차이를 비롯한 결혼의향의 차이는 가족 및 사회에서의 갈등을 유발하며 결과적으로 결혼과 가족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성별간의 차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서도 원인 및 영향에 대한 지속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더불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단순히 경제적 차원에서만 접근하기 보다는 청년층의 가치관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총체적인 사회적 지원 체계의 구축이 요청된다. 구체적으로 대학교를 비롯하여 지자체 및 공공기관, 언론매체가 중심이 되어 출산·양육부담이 여성에 전가되지 않는 성평등적·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교육의 보급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결혼의향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경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기존의 연구에서도 (A, R. Won, 2015) 결혼의향은 대체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혼인율은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4). 이를 볼 때, 한국사회가 결혼의 당위성을 강조한 과거 전통사회의 규범적 가치관이 여전히 현대까지 영향력을 가짐에 따라 미혼남녀가 결혼의향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으나, 실제적 결혼선택에 있어서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같은 현실적 측면과 복잡한 다른 요소들이 결혼에 적극적일 수 없는 상황으로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미혼남녀들의 긍정적인 결혼의향이 실제 결혼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결혼의 현실을 반영하는 측면을 고려함으로써 이들의 결혼진입이 유리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성인기 초기부터의 결혼준비교육을 비롯한 결혼정책 전반에 대한 변화 및 근본적인 대책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결혼의향과 관련해서 남학생에 비해서 여학생의 결혼의향이 낮은 것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역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본다. 육아휴직제나 유연근무제, 남성육아휴직 할당제 활용에 있어서 남성들의 적극적인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 기업문화의 조성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제안한다. 특히 기업의

장시간 노동체제는 취업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하며, 결혼과 함께 여성으로 하여금 노동시장의 참여를 포기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은 미혼여성의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한다. 따라서 여성취업의 증대와 함께 건강한 사회, 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장시간 노동체제의 기업문화로부터 탈피하도록 노력하는 가족친화환경의 조성은 중요한 정책적 과제다(J. H. Park & Y. H. Kim, 2012).

넷째, 자녀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미혼자들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자녀양육으로 인해 경력 단절을 경험할 수 있기에 자녀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지자원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부문의 돌봄지원의 서비스는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맞벌이 부부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취업가족 자녀의 일상 전반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모의 직장과 물리적 근접거리 안에서의 돌봄자, 아동, 부모, 지역자원 등의 돌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적 지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안정된 경제생활과 예측 가능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청년실업 및 비정규직 문제의 개선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결혼율의 저하는 단지 개인의 선택이 아닌 저출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정책 및 결혼정책이 보다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주거마련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경우 젊은 신혼부부들의 경우 주거마련에 대한 주택보유 의식이 일반가구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5). 이에 주거 마련의 기회 여부는 청년층의 결혼의향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더욱이 우리사회에서는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없이는 주거 마련이 매우 어렵고 자녀의 결혼시기가 더욱 늦어질 수 있다(S. Y. Im & J. H. Park, 2014; S-K, Koh, 2012). 따라서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거안정화 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연구와 관련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가치관, 사회적지지, 결혼의향에 대한 타당한 개념설정과 측정도구의 정교화를 통해 결혼의향의 영향요인의 인과관계 규명이 명확히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 측정문항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대한 다양한 결과들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서울 소재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결혼의향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대학생 전체로 일반화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는 더욱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일반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타당한 표집대상 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예비결혼세대인 미혼 청년층 대학생들에게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결혼준비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면, 향후 결혼율의 상승 및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S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and Processes*, 50, 179-211.

Barnett, R. C., & Rivers, C. (1996). *She works he works: How two income families healthier, and better-off*. Harper Collins: Sanfrancisco.

Becker, G. S. (1973). A theory of marriage: Part I.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4), 813-846.

Becker, G. S. (1976). *Economic approach to human behavio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Blau, D. M., & Robins, D. K. (1989). Fertility, employment, and child care costs. *Demography*, 26(2), 287-299.

Bryant, B. K. (1985). The neighborhood walk: Sources of support in middle childhood.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3), 1-122.

Chin, M. J., & Chang, H. E. (2010). The effects of family values on intentions of marriage and expected age at first marriage.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33(3), 31-51.

Cha, J. H. (2002).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mily differentiation and the emotional dynamics of the dating coup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illa University, Busan, Korea.

Cho, M. J. (2009). *A study on the relations to between college students' standards on job choice decisions and students' values on work-leisure-family and needs for family friendly polic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Choi, K. S. (2006). *A study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marriage satisfaction and social support of the female marriage immigrants: Centering Daegu & Kyungbuk area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ong University, Daegu, Korea.

Choi, S. E., & Ok, S. W. (2003).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timing at first marriage - Focused on the married men and women in the thirtie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8(1), 53-73.

Choi, J. S. (1983). *A study of korean family system* Seoul: Il Gi Sa.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3.

Cohen, S., & Hoberman, H.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99-125.

Duntst, C. J., Trivette, C. M., & Deal, A. G. (1988). *Enabling and empowering families and guidelines for practice* Cambridge, MA: Brookline Books.

Eun, K. S. (1995). Pattern of marriage transition. *The Journal Population Association*, 18(1), 89-117.

Eun, K. S. (1999). Does Life course matter in determining of marriage? - A sequence analysis of life event. *The Journal Population Association*, 22(2), 47-71.

Eun, K. S. (2005). Transition single to marriage.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102, 25-35.

Goldscheider F., & Goldscheider, C. (1999). *The changing transition to adulthood* New York: SAGE Inc.

Helburn, S., & Howes, C. W. (1996). Child care cost and quality. *The Future of Children*, 6(2), 62-82.

Hochschild, A. R. (1997). *The time bind: When work becomes home and home becomes work* New York: Metropolitan Books.

House J. S. (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Massachusetts : Addison-Wesley

Hong, E. Y. (2011). *Attitude towards marriage among unmarried men and women and the effect of their dependence on par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Gyeonggi-do, Korea.

Im, S. Y., & Park, J. H. (2014). The effect of family values and the resource factors provided by parents on marriage intention among never married men and women. *Korea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8(3), 177-193

Jang, D. H., & Lee, K. E. (2010). Effects of public support on mental health and adaptation to korean culture in married immigrant women. *Gender and Culture*, 3(1), 67-97

Jang, E. K.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mmunica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Jeon, Y. J. (2005). *A Study on the family differentiation*,

- quality of dating relationship and marriage-expectation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 Jeong, Y. D. (2004). *Study on quality of life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il University, Jeollabuk-do, Korea.
- Joo, N. Y. (2012). *Study on the both childbirth will and notion of marriage of the sing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kuk University, Seoul, Korea.
- KIHASA(2005). 2005 Nation Wide Tendency of Marriage and Birth Rate.
- Koh, S-K. (2012). Reciprocity on intergenerational resource transfers from middle-aged children to elderly parents. *Korea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6(2)*, 103-121.
- Koh, S-K., & Auh, S.(2013). An effect of the financial resources on the willingness to marriage formation among the never married in their 30s. *Korea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7(1)*, 63-79.
- Koh, S. J. (1996). *Dyadic adjustment after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in dual career famil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Kim, K. S. (1998). The family value orientations among adolescent, middle, and old generation. *Family Environment Research, 36(10)*, 145-160.
- Kim, D. S., Cha, S., Chun, H. R., Song, Y., & Kim, J. S. (2007). *Marriage, child-rearing and family life in a low fertility*, KHASA Report.
- Kim, M. S. (1998). *Relationship among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Kim, M. A., & Song, Y. S. (2012), University students values on marriage, gender role and children.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Association, 18(2)*, 303-311.
- Kim, S. R. (2003). *The relationship among parental attachment,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S. K. (2003). *The causes of low fertility and the fertility stabilization measure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86, 6-21, KIHASA.
- Kim, Y. S., & Kim, J. M. (2001). Social support: A concept analysis. *Bulletin of Dongnam Health College, 19(2)*, 163-172.
- Kim, J. S. (2006). Marriage intention among never-married men and women in Korea.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29(1)*, 57-70.
- Kim, J. Y.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levels of social support and satisfaction in courtship based on the attachment styles in college student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 B.(2013). The study of moderating effects upon gender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marriage. *Journal of Social Science, 39(1)*, 1-24.
- Kim, H. Y., & Sun, B. Y, (2011). Womens late marriage intention. *Korean Society, 12(2)*, 3-35.
- Lee, M. W. Kim, S. K., & Kim, R. Y. (2012). *Economic dependence on parents and late marriage*. KIHASA.
- Lee, S. S. (2010). *Policy response to low fertility 2010*.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159, 66-73. KIHASA.
- Lee, S. S., Jeong, Y. S., Kim, H. K. (2005). *2005 national survey on dynamics of marriage and fertility*. PRECAP·MOHW·KIHASA.
- Lee, E. J. (2007). *The research on the social support and quality of life of the old focused mainly on the old living in cit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 Lee, J. W. (2006). *On the university students' perceived views over family, marriage and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Gyeongsangbuk -do, Korea.
- Maume, D. (1991). Child care expenditure and women's employment turnover. *Special Forces, 70*, 495-508.
-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5). 2014 Korea Housing Survey Report. Seoul Korea.
- Moon, S. H. (2012). Effects of marriage and family values on the marriage age of unmarried young women.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7(3)*, 5-25
- Na, Y. M., & Kim, M. K. (2012), Research on the values the pre parents generation places on marriage and child birth.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6(2)*, 215-234.
- Oh, G., Park, Y. J., Oh, K., Kim, J. A., Lee, S. J., K. H., & J. C. J. (1999). Identification of attributes constituting Korean social support - Based on middle-aged wo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9(4)*, 780-789.

- Oh, S. H. (2006).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government's child care policies to solve low birthrate and child bir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eongju University, Cheongju.
- Ok, S. W. (1984). *New information of family studies II*. Seoul: Kyomun Sa.
- Pahl, R. (1984). *Division of labou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ark, K., S. Kim, Y. H., & Kim, H. S.(2005). Main causes of delayed marriage among Korean men and women; Contingent joints of status homogamy, gender role divisions, and economic restructuring.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28*(2), 33-62.
- Park, J. H. (2005). The effect of multiple roles of south korean married working mothers: Role gratification and strain, and factors which influence potential role gratification and strai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3*(5), 117-131.
- Park, J. H. (2014). The effect of family values and the resource factors provided by parents on marriage intention among never married men and women. *Korea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8*(3), 177-193.
- Park, J. H. (2015). The effect of work-family role conflict and spousal support resources on parenting stress among working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Korea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9*(3), 41-62.
- Park, J. H. (2015). The effects of family stress and social support resources on marital satisfaction among middle-aged married men and women, *Korea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9*(4), 71-94.
- Park, J. H., & Kim, Y. H. (2012). The effects of satisfaction with family-friendly life environment, and role satisfaction and role strain on marital ENRICHMENT of dual-earner employed men and women.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7*(3), 187-210.
- Park, J. (1985). *A study to development a scale of social suppor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Sarason, I. G., Levine, H. M., Bashsm, R. B., & Sarason, B. R. (1983). Assessing social support: The social support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Psychology, 44*(1), 127-139.
- Sassler, S., & Schoen, R. (1999) The effects of attitudes and economic activity on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 147-159.
- Seo, J. A. (1994). *The relationship of college students' value on marriage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Daejun, Korea.
- Seo, J. H. (2009). *Effects of gender role attitudes and life styles of unmarried employed women on position about marriage - Focused on the presence of their parents as common dwell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Son, S., & J. Lee (2014). Intentions of employed mothers with young children to leave the labor force. *Journal of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2*(3), 157-177.
- Song, Y. K. (2006).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Korea.
- Statistics Korea. (2014). 2014 Marriage·Divorce Statistics
- Statistics Korea. (2015). 2015 Marriage·Divorce Statistics
- Stein, P. J. (1981). *Single life: Unmarried adults in social context*. St. Martin's Press: New York.
- Yang, M. S.(1996). A Study on the values of marriage, child and sex roles between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Family Environment Research, 34*(2), 167-181.
- Weiss R. S. (1993) *Loss and Recovery*. In Stroebe, M., Stroebe, W., & R. O. Hansson (Eds.), *Handbook of bereavement: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pp. 271-84).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on, A. R.(2015). *The study about variables influencing marriage intentions and values of unmarried men and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釜野さおり. (2004) 「身女性の結婚意欲と出産意欲」.目依子・西岡八編.『少子化のジェンダ分析』.東京:勁草書房.
- 山田 昌弘(1999). *バラサイトシングル時代*. ちくま新書. 東京: 筑摩書房

Received: May 15. 2016
 Revised: August 21. 2016
 Accepted: August 25. 2016